

"용역회사 직원이줄 알면 창피해서..."

고용불안

II. 금융부문

<5>

"부모님과 친척들은 제가 ○○카드회사 직원이 줄 알죠. 만일 용역회사 직원이 줄 알게되면 저는 창피해서... 그래서 저는 이 나쁜 조건에도 불구하고 계속 다니게 돼버렸어요."

지금 21살인 ○○양(그녀는 끝까지 이름 밝히기를 거절했다. 전에 동료 한사람이 용역 실상을 언론에 폭로했다고 해서 총무부로 불려가 엄청난 수모를 당했다 한다.)은 제일 마음 상하는 점은 회사에서 정직원과 거의 유사한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용역사원으로 받는 인간적인 '모멸감'이라 한다.

여자나 21살이면 한창 감수성이 예민할 때다. 그러나 그녀는 용역회사 직원이란 이유로 직장 생활을 열등감 속에 보내고 있다.

○○카드에 들어와 있는 용역회사는 모두 5개다. 진방, 태평양, 코리아 템포러리, 한국산업안전, Ek.MAN 파워이다. 그러나 여기에 소



보복이 두려워 이름 밝히기를 거절하는 ○○카드의 20대 여성 용역 노동자.

속된 용역 노동자들의 임금은 각기 다르다 한다.

카드 연체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23)양은 매달 40만원 정도를 받고 있는데, 이 카드회사의 여자 정직원 월급은 70만원정도이며 보너스는 9백%이다. 월급에서 의료보험료는 매월 공제하면서 입사한지 8개월이 돼도 의료보험카드가 나오지 않아 항의를 거세게 했더니 그제서야 의료보험 카

드가 나왔다고 한다. 그러나 아직 자기 주변 동료들은 의료보험료를 매달 꼬박꼬박 내면서 보험카드는 회사측의 지연으로 발급받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고 한다.

카드회사의 용역 실태는 심각하다. 89년부터 용역직 채용이 급속히 늘기 시작했는데 외환이 1백98명, 국민 신용카드가 3백13명, 비씨카드가 2백42명으로 노조측은 밝히고 있다. 이 수는 여자

정직원과 비교할 때 외환은 80%, 나머지는 50%선에 육박하고 있다.

아멕스카드는 지난 92년말 약 1백명을 감원시키고, 올해 들어와 용역직을 계속 채용해서 55명에 달하고 있다. 9월17일 현재 인터코리아 용역사원이 30명, 파트타임이 14명, 촉탁직이 16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업무는 단순보조직을 넘어 카드 승인업무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그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또한 작년말부터 꾸준히 소문이 나돈 현대와 동양의 아멕스카드 합작인수설의 사전 전 단계로서, 정직원 감원과 용역사원 고용증가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나하는 의구심도 있다고 아멕스카드 관계자는 전하고 있다.

외환신용카드노조 권재철 위원장은 "만약 근로자 파견법이 통과되면 정부가 강도짓을 합법화시켜주는 꼴"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조합원들도 용역노동자들이 고용되면 인간비도 절감되고, 상대적으로 업무가 수월해진다는 개인주의적 분위기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는 노동자의식에 대한 교육 및 홍보가 더욱더 철저해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카드사 외에 은행에서도 고용불안 현상은 서서히 자리잡고 있다.

은행 업무는 다른 회사와 달리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변형된 형태가 사용되고 있다. 은행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다가 결혼으로 퇴직한 여직원들을 다시 불러들여 8시간 근무의 파트타임으로 쓰고 있다. 이런 현상은 시중 은행의 경우에 만연화된 현상인데 외환은행이 93년 6월 자체 조사한 결과 5대 시중 은행에서 퇴직 주부사원을 고용하는 평균 인원은 1백20명인 것으로 밝혀졌다.

외환은행은 92년도에는 4백명 선으로 까지 늘었다가 생산성이 떨어지자 최근 2백명 선으로 줄였다. 이들이 하는 업무는 문서 정리, 문서 수발, 사후 관리, 신용카드 업무 등인데 대부분 당행 출신들이라고 한다. 이 주부사원들은 퇴직금도, 상여금도 물론 없다. 시간당 2천원 정도 수준의 댓가를 받을 뿐이다.

국책은행인 중소기업은행도 최근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데 노조(위원장 송익진) 자체 조사에 의하면 본점에 근무하는 16명의 파트타임 사원 중 11명은 당행 출신이며 나머지 5명은 타행 출신이라고 한다.

후발 은행인 한미은행 역시 최근 15명의 파트타임제 사원을 고용하고 있다.

<다음호에 계속>

<유용화 기자>